

●광주여성가족재단 '에코페미니즘 학교'

기후위기가 말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단순히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고 쓰레기를 잘 분리하는 것만으로 거대한 기후위기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의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지난해 열린 생명동기후위기 사례 공유회

기후위기 시대, 생태·공동체성 회복 모색

오는 19일 '기후회복' 주제 강연 시작으로 북토크·라운드테이블 등 총 6회 프로그램



광주여성가족재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오는 19일 '기후회복' 북토크로 첫 문을 연다. 사진은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 표지(위)와 강연자로 나선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아래)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 젠더연구소, 광주여성민우회가 공동기획한 '에코페미니즘 학교'다.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기후위기 시대 성평등 관점에서 생태 및 공동체성 회복을 고찰해보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기후회복' 북토크다. 문화인류학자, 시인, 도시농부 등 15명이 함께 집필한 책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 저자들이 전하는 강연이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센터장 등 4명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

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다시 '살 만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실천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다음달 10일 오후 7시 김지은 경희대 강사가 강연하는 '악어의 눈'이다. 악어에게 잡아 먹힐 뻔한 경험을 통해 인간 역시 다른 모든 생명 존재와 마찬가지로 먹이사슬 안에 위치한다는 통찰을 담은 내용의 책 '악어의 눈'을 번역한 김 강사가 북토크로 시민들과 만난다.

6월에는 지리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는 '지리산방랑단'을 초청한다. 강의는 오는 6월8일 오전 11시 광산구 송정동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열린다.

7월19일 북카페 은새암에서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매몰지를 기록한 '이름보다 오래된' 도서의 저자 문선희 작가 북토크가 진행된다. '생명 존엄성, 고라니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을 주제로 고라니 얼굴 사진 작업에 대해 이야

기한다. 9월에는 '세계 끝의 버섯' 역자인 노고운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와 함께 자본주의 폐허 속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경제·문화·생물학·생존전략을 연결해보는 내용의 북토크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0월 중에는 돌봄관련 연구자 5인과 함께 '자녀 교육과 양육방안' 등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다루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통찰을 담은 책들의 저자와 역자 초청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생태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2.

/최명진 기자

'ACC 미래상' 첫 수상자 미디어아티스트 김아영

융·복합예술분야수상제도 격년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제정한 'ACC 미래상' 첫 수상자에 김아영 미디어아티스트가 선정됐다.

'ACC 미래상(ACC Future Prize)'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창조적 예술 언어의 생산자 발굴을 위한 ACC의 융·복합 예술 분야 수상제도다. 작가 1인(팀)을 선정해 올해부터 격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ACC 미래상' 수상자에게는 복합전시관 전시를 위한 작품제작비 3억원과 프로덕션 인프라 지원, 해외 전시 추진 등 혜택이 주어진다.

복합전시 1관(1천500㎡ 규모)의 공간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미래 예술의 감수성을 제안하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아시아 문화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센터로서의 차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ACC는 'ACC 미래상'을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계승하고 동시대 아시아의 관점을 확장해가는 새로운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환경-기술을 비롯한 사회 전환기의 예술 환경 변화를 아우르고, 예술 가치와 융·복합 기술을 매개한 예술적 실험이 유추하는 미래 삶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ACC는 지난해 국내외 20여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작가추천을 받아 총 4명의 작가를 1차 선정했으며, 선정된 작가들로부터 작품제안을 받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과정을 거쳤다.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아영 미디어아티스트는 역사·정치·지정학 등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경계와 그

세계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며 실재와 환형, 미래 도상을 담은 영상, 퍼포먼스, 설치작품을 통해 국내외 예술계에서 주목받아왔다.

ACC 미래상 2024 심사위원회는 "중첩적이고 강력한 서사에 다층적 시각적 요소를 집적시키는 김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소멸한 역사의 기록, 작가의 미래주의적 세계관이 담긴 가상의 시나리오와 AI가 선사하는 열린 결말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 미래상'을 통해 동시대 예술의 독창성과 실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창·제작자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융·복합 예술 분야 수상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CC 미래상 2024 김아영' 전시는 오는 8월30일부터 2025년 2월16일까지 ACC 복합전시 1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문화재단, 지역맞춤형 콘텐츠 유통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등...연극·음악 분야 3개 작품 선정

광주문화재단은 16일 "올해 우수공연 초청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국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총 3개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은 문화 취약지역 문화 향유 증진 및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해 ▲

(사)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음악(관현악) ▲극단수수파보리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연극(창작극) ▲에이엠(A. M) 예술기획 '비루투오소의 조우(漕遇)' 음악(실내악) 총 3개 작품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공연은 오는 8월17일, 24일, 31일 3차례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모두 1만원으로, 수익금



지난해 우수공연초청기획 뮤지컬 '우리들의 사랑'

전액은 공연팀에 전달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실천 및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객석의 10% 내외 좌석은 문화·경제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청소년 소통단 '루체스타' 8기 모집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21일까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제8기 루체스타 단원을 모집한다.

호남권역 청소년(초등 4학년부부터 고등학교생까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10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다.

'빛나는 별'을 의미하는 루체스타(Lucestar)는 호남권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외활동이다. 주요활동은 ▲과학관 전

시·교육 등 행사 참여 및 홍보 ▲과학실 체험, 콘텐츠 제작 등 과학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특별기획전 무료 이용(월1회, 동반 3인까지) ▲1일 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월1회, 단원 한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 ▲봉사활동 ▲연말 우수활동 단원 선정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광주시장상 1명, 국립광주과학관장상 10명)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